

해남군, 귀농·귀촌인 유치 다양한 정책 '눈길'

지역상품권 100만원 지급 찾아가는 융화교육 펼치고 어울림 마을 조성 사업 추진 체류형 지원센터 공모 선정도

해남군이 신규 귀농인에게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신규 귀농·귀농 정책은 해남사랑상품권 지급이다. 5년 이내 해남으로 귀농한 20세 이상 농업인이 대상으로 1월 2일 이후 농업경영체

에 등록돼 있으면 가능하다. 이들에겐 해남사랑상품권 100만원을 지급한다.
해남군은 해남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신규 농업인들이 영농 정착 중장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0년 신규사업으로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융화 교육'과 '귀농산어촌 어울림 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은 귀농·귀촌인이 다수 거주하거나 지역민과의 갈등이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융·화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귀농산어촌 어울림 마을은 해남에 귀농하거나 귀촌한 사람과 지역주민이 어울려 사는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공동체 조성을 비롯해 상호 공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해남군은 35억원을 투입하는 2020년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공모사업을 통해 체류형 주택, 교육 시설, 공동체 실습농장, 보육실·휴게실·도서실·체력단련실 등 다목적 커뮤니티 시설을 구축·운영하게 된다. 또한 예비 귀농산어촌인이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귀농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귀농·귀촌인들은 지원센터에서 농촌을 이해하는 한편 창업 과정 교육, 토지·주택 등 정보는 물론 해남군에 성공적으로 귀농 귀촌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및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정착 소득기반조성사업을 확대해 총 5억6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귀농인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귀농 시작 단계부터 귀농생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해남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귀농·귀촌 1만명 유치를 목표로 '귀농·귀촌 1번지' 해남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포스트코로나 위기 대응 '무안형 뉴딜 사업' 발굴 군, 실행계획 마련...995억 투입

무안군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위기 대응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무안군은 지난 29일 김산 군수 주재로 '포스트코로나 위기 대응 실행계획 보고회'를 갖고 정부의 3차 추경예산(안)에 담긴 '한국판 뉴딜' 정책의 내용과 향후 정부 정책 방향성에 대해 공유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응 전략 실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날 보고된 사업은 신규사업 29건을 포함한 총 58건으로 일자리·경제분야 10건, 일반행정분야 11건, 농수산 분야 15건, 보건복지분야 7건, 관광 분야 6건, 산림환경분야 5건, 정보통신 분야 3건이다. 소요 예산은 국비 447억 원, 도비 56억 원, 군비 490억 원 등 총 995억 원에 이른다.
발굴한 주요 사업은 비대면 문화 확산에 대응한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공공 와이파이 추가 확대, 소상공인 스마트 시범상가 조성, 중소기업 및 농수산물 온라인 판촉지원, VR/AR 체험시설 확대 등의 비대면산업 육성사업이다. 또 소규모 개별 관광 확대는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회산백련지 야간경관명소 구축, 무안 모두누리 숲 조성 등과 같은 그린 뉴딜사업 등이다. 이 밖에 코로나 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 차원의 대규모 방역물품 비축과 관내 의료기관 응급병실 및 설비 확충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산 군수는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경제 구조의 혁신적인 재편에 중점을 두고 펼치는 사업인 만큼 우리 군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과감한 '무안형 뉴딜' 사업을 발굴하는 데 더 고민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산림조합, 완도해조류박람회 제1호 입장권 구매

성공 개최 위한 업무 협약 5000만원 상당 구매 약정

산림조합이 '2021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제1호 입장권 구매약정을 체결했다.
지난 30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와 SJ산림조합, 완도군산림조합 등이 최근 2021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산림조합은 5000만원 상당의 입장권 구매를 약정했다. 또 전국 영업점 163개소, 임직원 3000여명의 산림조합 조직을 통해 해조류박람회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해조류박람회 조직위는 오는 10월 강원도 고성에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박람회 조직위원장은 신우철 완도군수는 "내년 박람회는 해조류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해 준비하고 있다"며 "박람회 성공 개최를 통해 해조류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는 내년 4월23일부터 5월16일까지 완도항 일원에서 '치유의 바다, 바닷말이 여는 희망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신우철(가운데) 완도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장, 최창호 산림조합 중앙회장, 박진욱 완도군산림조합장 등이 지난 26일 '2021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완도군 제공>

완도 보길도 예송해수욕장, 블루플래그 인증 추진

신지명사십리 이어 2호 획득 나서

완도군이 보길도 예송해수욕장의 블루플래그 인증에 나섰다.
완도군은 블루플래그 인증을 위해 사전 평가보고서 작성 등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블루플래그 인증이란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환경교육재단(FEE)이 안전, 환경교육, 수질, 주변환경 등 4개 분야, 29개 평가 항목과 137개의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해수욕장에 부여한다. 1985년 유럽에서 시작돼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현재 50개국의 해수욕장과 마리아나 블루플래그 인증을 취득했다.
국내에서는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유일하게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보길도 예송해수욕장은 모래 해변이 아닌 청명 석이라 불리는 갯돌로 이루어진 길이 약 2km, 폭

50m의 해변이다.
갯돌은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갈 때면 황홀한 해조음을 만들어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고 해서 백색 사운드의 향연장으로도 불린다.
해변을 둘러싼 수령 200~300년 된 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40호)과도 절묘한 조화를 이뤄 경관이 아름답기로 정평이 나 있다.
예송해수욕장을 품고 있는 보길도는 역사문화 자원은 물론 산림과 해양치유 자원이 산재해 있는 국내 최고의 섬 정원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
섬 곳곳에는 세연정 등 고산 운선도 유적지와 동백 군락지,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약 5.2km의 어부사시사길과 수평선을 바라보며 명 때리기 좋은 보육리 공룡알 해변 등이 있다.
예송해수욕장 블루플래그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올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 5회의 수질 검사와 개장 전후 각 한 차례씩 총 7회의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내년까지 모두 137개의 평가 항목을 충족해야



몽돌 해변으로 유명한 보길도 예송해수욕장 전경 <완도군 제공>
완도군 관계자는 "블루플래그 국내 1호인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이어 예송해수욕장이 제2호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광군, 지역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대출 이자 지원

영광군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경영안정자금 대출액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증 또는 코로나 피해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을 통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금융기관에서 실행된 대출자금이다.
영광군은 해당 대출액에 대하여 용자일로부터 1년간 1.4~1.5%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신청은 금융기관에서 해당 자금의 대출액을 확인한 후 상반기 이자납입 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청 투자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말 24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상기 자금을 용자한 소상공인으로 영광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한다.
/영광=이종운 기자 jylee@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없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